

체적 내용을 알았다면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은 민법이나 다른 구체적 법률에 정해진 고지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 민법 등에서의 법리와 다른 독자적인 고지의무나 책임을 창설하는 규정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업데이트에 관하여 고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증명하지 못하였다. 위자료 청구는 재산적 법익 침해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까지 침해되었다는 특별손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등이 추가적으로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

## **2) 피고 B**

이 사건 업데이트는 피고 A이 제작·배포한 것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C의 사용자와 하드웨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프트웨어인 이 사건 업데이트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

## **3. 이 법원의 판단**

### **가. 재물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 **1) 인정사실**

갑 제22, 25 내지 30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업데이트를 실시한 후 원고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C에서 C의 운영체제 및 기타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고 멈추